

Propylene, 600달러로 45달러 급등

FOB Korea 590-610달러 형성 ... 유럽가격은 500달러로 90달러 폭등

Propylene 가격이 1월9일 FOB Korea 톤당 590-610달러로 45달러 급등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다운스트림 가격이 CFR Asia 톤당 800달러대로 상승하고 업스트림인 Naphtha 가격이 CFR Japan 톤당 366달러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폭등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한 생산기업은 2월 거래물량을 FOB 톤당 590달러에 판매했으며 이어 판매가격이 60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구매의사가 가격은 600달러 이하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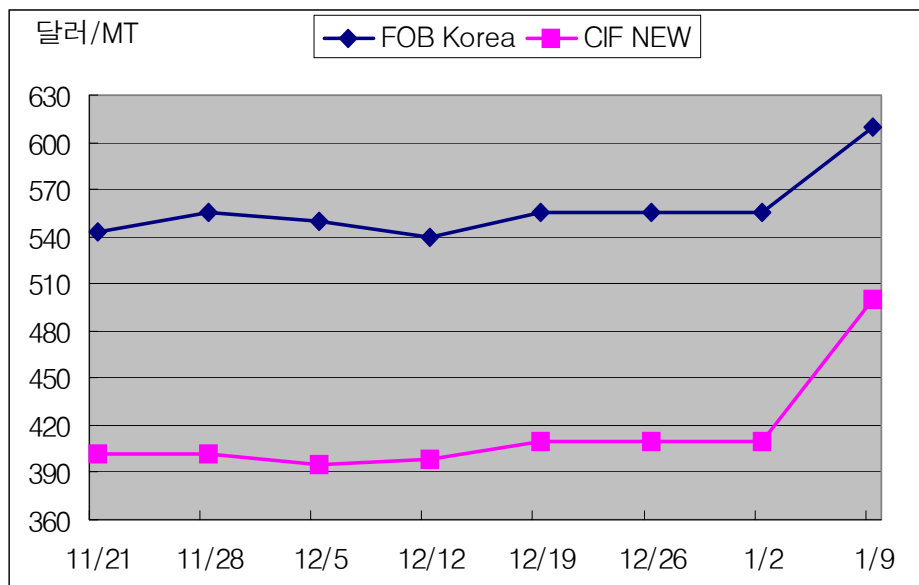
한국가격 강세에 힘입어 중국 및 타이완 가격도 CFR 톤당 630달러대를 기록해 상승세를 탔다. 중국가격은 주초 CFR 톤당 615-625달러로 강세를 나타냈으나 무역상들이 추가상승을 예상하고 공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구매기업들은 Formosa가 프로필렌 생산능력 14만6000톤의 RFCC 가동률을 70%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공급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남아에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가격차가 컸으며 내수 공급부족으로 한국산 Cargo만 CFR 톤당 680달러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동남아 공급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월 거래물량에 대한 구매의사가격은 CFR SE Asia 톤당 650달러 이하를 형성했으나 공급부족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Prop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1월9일 CIF NWE 톤당 490-510달러로 90달러 폭등했으며 2004년 1/4분기 계약가격은 FD NWE 톤당 475유로를 형성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14>